



첫 500년

제리 앤드류스 Jerry Andrews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인 미국장로교회가 세상과 앞으로 500년을 위하여 전하는 선물은 바로 (기독교가 시작된) 첫 500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시작에서부터 명시되어야 합니다.

미국장로교회가 앞으로 500년 동안 계속하여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니지만 곧 주어질 선물로서 어떤 교회 형식이 미국장로교회와 교단주의를 따르는지에 대하여 살아있는 헌법을 성공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교회 자체는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끝입니다. 그 후에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알맞는지 조언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주의가 더 이상의 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마도 교회와 세계를 위해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제안하는 것이 너무 오만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500년을 생각할 때에 이 마지막 진리는 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저보다 먼저 믿음으로 사시며 돌아가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아직 머물러 계신 것을 고려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각 세대는—세대를 어떻게 정의하건 간에—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기억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에 생산된 발명품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유혹은 언제나 존재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대신에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은사는 그 자체가 내는 독특한 공헌들보다 높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테스트를 거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신실함의 요구가 각 세대를 압박하고 각 세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 보내야 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물려받은 것,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성의 대부분은 신앙이 감소되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더 테스트되고, 진실로 발견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정도에 의해 측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500년 동안(다음

500년 동안 받게 될 선물)은 우리 개혁 교회로서의 첫 번째 500년 동안의 자의식 정체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최초 500년 동안의 언급을 말합니다. 이는 칼빈과 개혁자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념해에 개신교 신앙의 독특한 공헌과 다음 세대에 주어진 최상의 선물(고결한 프로젝트)을 바라는 우리의 열망을 열거하는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개혁자들이 믿음으로 지냈던 것에 대한 신실한 청지기 직분(그들이 신앙의 디자이너가 아니라 수령인 이었음)은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힘들어 하며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칼빈을 읽은 사람들의 저서를 읽는 프로젝트에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칼빈이 독서한 책을 읽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부름을 들었습니다. 고대의 것들이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오래 전 일들이 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성향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훌륭한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와 아마도 저를 가르치신 분들의 인내심을 테스트 했습니다. 교회의 첫 500년 동안의 문헌과 이교도 고전의 방대한 습득이 저에게 대학원, 도서관 빌딩, 및 청지기로서의 시간을 선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혜택을 누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에 대한 저의 이해와 적절함의 혜택, 봉사하는 회중에 대한 혜택, 봉사하려고 노력한 더 큰 교회에 대한 혜택을 말합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총장이었던 제이 맥코드(J. I. McCord)는 이에 대한 저의 노력을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에큐메니칼 대화가 곧 진지하게, 지속되며, 철저히 신학적으로 진행될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첫 500년 동안의 대화가 가장 우려된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대화를 잘 준비하였지만 개신교는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말하길 우리는 교회사가 칼빈과 함께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표 할까요? 우리는 공헌할 준비가 되어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들 수 있습니까? 칼빈은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대화는 초대교인들이 사용하였던 식탁에서 가장 잘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헌신은 어떤 유익을 제공합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제공 할 수 있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이 헌신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신학이 독방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또한 공개적이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아마도 처음 500년 동안 가장 재능 있는 지식인 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신학적 우정의 은혜를 지인들과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원 400년경에 가장 높은 경지에 있던 그가 키프로스 (Cyprian) 및 터툴리안 (Tertullian)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고, 씨름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400년 동안의 교회는 북아프리카의 동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녁 식탁에 어거스틴과 함께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시대를 여전히 발전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믿음이 계승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즉, 발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설명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목회자 동료들은 그를 위해 생산력을

발휘했습니다. 동시대에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역한 사람들은 그의 신학적 결과와 교회의 개혁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편지, 글들, 그리고 그의 논쟁조차도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그의 공헌 또한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세대에 신앙을 통해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은 자랑스러워 함이 당연합니다. 그는 그의 도서관을 만들고, 생각하고, 글쓰기를 옛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분명히 말하여: 이것은 그의 세대 이전에 말하고 행해진 모든 것에 대한 전체적이고 차별이 없는 설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개혁이었습니다. 많은 오류가 들끓었습니다. 몇몇 관행은 불충실하였고 버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재창조-우상 숭배 또는 원시 시대 과거로의 복귀도 아니었습니다. 500년 동안의 개혁 교회 역사는 첫 500년의 환생이 아니며 의도된 것도 아닙니다. 이 500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처음에 말한 것을 다시 듣고,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통된 삶을 새롭게 순종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옛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지만, 이상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지만 일방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증언과 그 중 무엇이 자신의 세대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고뇌했습니다. 특히, 칼빈은 어거스틴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신뢰하며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칼빈은 어거스틴과 가장 논쟁을 벌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대화의 중요성을 얼마나 크게 드러내는지 밝혀 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을 위해, 칼빈은 어거스틴의 가장 훌륭한 독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은 개혁주의자가 아닌 바울의 가장 훌륭한 독자이기도 합니다. 또는 어거스틴의 전기에서 피터 브라운(Peter Brown)은 "바울은 말하고, 어거스틴은 이해했다"라고 합니다.¹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교회 개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500년을 위한 미국장로교회의 선물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통역인으로서 처음 신앙을 생각한 사람들과 대화함으로써 뚜렷하게 개혁된 용어로 표현된 신앙을 통해 생각하고, 가르치고, 테스트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의 대화를 중요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혼자서만 읽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동시대인들과 이것을 자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그들은 우리가 선택한 동시대인인 만큼 대화를 축소시키는 위험과 신앙 탐구 능력의 불필요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 또는 유산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테이블에 앉은 옛 사람들은 저의 경험으로 보아서 그들을 설득하기란 어렵습니다. 제가 어거스틴에게 좀 더 평등주의적 교회 질서를 갖도록 확신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겠지만 그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규범적인 방법으로 우화(allegory)를 사용하지 말도록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분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며

¹ Peter Brown, *Augustine of Hippo: A Biography* (London: Faber and Faber, 1967), 359.

진행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구세주는 누구입니까? 그는 지금 어디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저의 동시대 사람들은 충실한 답을 발견하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저의 한계를 알고있고, 답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제한 사항이 세대별, 문화적 특수성 및 동시대 사람들과 공유될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종종 그렇게 합니다. 누가 나를 도울까요? 누가 우리를 도울까요? 그리고 분별력 - 우리의 목표로 가장 자주 표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 -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아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엿듣는 상황에서 더 잘 정의됩니다.

옛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진정으로 "다른"사람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는 외국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르게 일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현대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읽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화에 초대하는 것도 권장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옛 사람들은 성경의 첫 번째 해석자가 됨으로써 독특한 위치와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 500년 동안 다양한 장소와 문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은 최초의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더 충실하거나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저작물의 시간과 장소에 더 가까우며 성령이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로 형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식탁에 먼저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말하도록 초대합니다. 좋은 일이 이것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부분적으로만 소개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에서는 어린 시절에 배를 도둑질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록할 많은 사람들이 모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습으로서 늦은 밤에 소년 갱들이 이웃 과수원에서 배를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거스틴이 있었고 그들은 엄청난 물량을 훔쳐서, 그 중 약간만 먹고 나머지 대부분은 가까운 돼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소년들은 배고프지도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냥 재미로 했습니다. 그는 배를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범죄 그 자체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의 기쁨은 순전히 그것이 금지된 것에 있습니다."² 그는 악을 좋아하기에 그 짓을 했으며, 그는 그 일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날 밤 친구들이 자신의 업적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람과 자기가 하지 않을 일을 하도록 그들이 움직여 주길 바랬을까요? 아니오, 또한 예라고 어거스틴은 대답합니다. 그는 도둑질의 애정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똑같은 솔직함으로 십대 친구들에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고, 그가 혼자라면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² *The Confessions of St. Augustine*, trans. John K. Ryan (New York: Doubleday, 1960), 69-75.

확신합니다. 심야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의 욕망의 가려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의 공범자들이 왜곡된 욕망을 그 속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확대시키고 그에게서 그것을 꺼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또 웃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 것도 모르던 과수원 주인에게 속임수를 사용했고, 상상하기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노하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거의 혼자서 웃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 이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여전히 생생한 기억입니다. 나는 혼자서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기쁨은 내가 훔친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내가 홀로 행하였다면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 그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우호적인 우정, 너는 영혼의 불가사의한 유혹자, 너는 영광을 얻지 않고 순진한 스포츠와 어리 석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열렬한 식욕을 지니고 있다. 너는 단지 '어서, 하자!' 라며 부끄러운 줄 모름을 부끄러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그만둡니다."³

우정에 대한 이처럼 유익하고 심오한 통찰력을 발견하기 위해 제가 지금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학의 이 범주는 수세기 동안 큰 소리없이 조용했습니다. 분명히 향후 500년은 의심할 여지없이 필요한 것, 즉 기독교 공동체에서 우정의 문제에 관해 성실하게 들었고 살아왔던 성서의 증거와 관련하여 옛 사람들의 지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노력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한 확신과 신실성에 대한 경손을 얻었기 때문에 첫 500년 동안의 열매를 세상에 전하며 앞으로의 500년을 더 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거부했다면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다음 세대 또한 옛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목록에 곧 추가될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 좋은 반론에 응하여 봅시다. 옛 사람들 역시 시간과 공간, 세대와 장소, 문화에 의해 제한 받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나 첫 500년은 문화나 지리 또는 관점에서 단순한 모놀리식(monolithic)이 아닙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서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제롬의 팔레스타인, 어거스틴의 북 아프리카, 폴리누스의 이탈리아는 비록 라틴 언어를 공유했지만 문화적으로 서로 엇갈렸습니다.

비록 이 세 제자가 한 세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국에서 하나의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들 세대의 경제 및 사회 공간에서 매우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옛 세계는 지도상의 순간이나 시점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들은 서로 논쟁하고, 동맹을 맺고, 서로서로 통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력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우리 모두를 부르는 성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진지한 대화에 서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대중과 함께 그들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차이점을 두고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 대화에 초대합니다. 그 대화로, 칼빈이 왔고,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대화에 우리는 지금 초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것에 종사하고

³ Ibid., 95–101.

그것을 전달하면 우리 후 세대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반대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 500년은 오래 전부터 먼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500년 동안, 그것은 더 멀어 질 것입니다. 네, 그 거리가 멀어 질수록 더 작은 공통점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든 옛 고대의 능력은 그것이 얻은 가치를 초과하는 흑독함이 될 때까지 점점 더 어렵고 상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이유로 아니오를 설명합니다.

첫째, 간격을 두는 것은 "다른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때 부도덕하지 않은 미덕입니다. 그들은 "타인"이며 훨씬 더 소중하며 우리와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그들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고전적, 역사적, 신학적 연구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세대에 어거스틴이 쓴 편지와 설교를 발견하고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추가 발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연습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는데 더욱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판 사업은 고대 기독교 문학을 점점 더 저렴한 가격의 영어(및 다른 언어)로 매년 더 많이 배치합니다. 곧 목회자의 도서관은 고대 개혁자들의 목소리와 최근 세대의 목소리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옛 사람들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앞으로 500년이 훨씬 더 다를 것이며 처음 500년과 어떻게 달라질지 잘 모르는 일이며,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00년 동안의 도착과 성장, 고난과 승리, 그리고 계속될 도전과 기회의 상황은 가장 최근의 500년보다 첫 500년의 것과 더 유사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보세요, 신앙은 현재 세계 종교가 가장 많이 펼쳐지는 곳으로, 그리고 신앙의 핵심이 가장 직접적으로 도전 받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후식민지 시대의 아프리카와 붕괴되는 로마 제국의 후반 고대는 지난 500년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비슷합니다. 우리가 남미에 대해 알고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 알고있는 것을 추가하고,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믿음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측하십시오. 고대 아프리카 사람인 Cyprian, Tertullian, Athanasius 및 Augustine은 다음에 올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국의 발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Harare는 Hippo와 Carthage의 Kinshasa에서 휴스턴이나 시카고보다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첫 500년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많이 배우고 공헌한 후, 앞으로 500년을 위한 대화를 새롭게 하고 강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인간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 마리아와 요셉, 당신과 나,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영혼입니다. 성경에서 조물주는 인간을 창조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포는 첫 500년 동안 완전한 단어로 여러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 왔습니다. 앞으로의 500년 동안 우리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옛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 시켰는지 그들은 관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간에 듣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상관없이 인간의

영혼만큼이나 공유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넓습니다.

개혁주의는 지난 500년 동안 교회에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의식을 가지고 변증할 필요 없이 우리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개종자와 세대마다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약속과 전통을 벗어난 충실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사였습니다. 미국장로교회의 고백과 개혁주의 사상의 신앙고백 본능이 잘 발달되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 헌신과 실행은 분명한 개혁 교회가 있기 전에 신앙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가르친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500년 동안의 청지기 직분 덕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500년 동안 최고의 선물로 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식별하는 신앙공동체의 구성 부분으로서 옛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대로 살면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돕고—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오랜 것입니다.

첫 500년

대화를 시작하며: 토론 질문들

미셸 바텔 Michelle Bartel

1. 저자는 대화로 학습을 계속하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증인의 구름"(히브리서 12장) 과의 대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연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누군가와 가진 대화 혹은 기독교인임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친척입니까? 목사? 선생? 낯선 사람?
2. Andrews는 존 칼빈(John Calvin) 및 어거스틴 (Augustine)과 같은 사람들을 같은 종류의 대화 상대자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청력 대신 독서로 듣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배를 훑친 이야기와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3. 앤드류는 종교개혁의 다음 500년 동안 칼빈이 읽은 저자들을 읽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과 이야기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4.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함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자는 이것이 의미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은 믿음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새로운 개종자와 세대에게 우리가 받은 신앙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받은 믿음을 어떤 면에서 공부 했습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당신은 새로운 개종자나 세대에게 보냈습니까?
5. "고대"라는 단어는 이마가 우리 앞에서와 같이 "앞에서, 이전에"를 의미함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고대"인 믿음의 옛 형제 자매들이 우리 뒤에 있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증인의 구름이 진행됩니다. 신앙의 조상과의 연구와 대화는 밤에는 불의 기둥이나 낮에는 구름의 기둥과 같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열망합니까? 크리스천 신앙에 대해 어떤 기술이나 이해가 필요합니까?